



# 프로야구 열기 뜨거웠다... 2시즌 연속 1000만 관중

2024시즌 첫 1000만 관중 달성에 이은 2번째 기록  
5개 구단 100만 관중...1088만7705명 돌파 기대  
587경기 치른 23일 기준 좌석 점유율 82.9% 달해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가 야구의 날인 지난 23일 기준 5개 구장에서 총 10만1317명이 입장하며, 누적 관중 1008만8590명으로 역대 2번째이자 2시즌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다.  
587경기만에 1000만 관중을 달성하며, 역대 최초 1000만 관중을 달성한 2024시즌 671경기만의 1000만 관중 달성 기록을 84경기 단축했다.

23일까지 평균 관중은 1만7187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7% 증가했다. 또한 전체 좌석 점유율은 82.9%를 기록 중이다.  
2025 KBO 리그는 3월 22일 개막 후 4월 6일 역대 최소 경기인 60경기만에 1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이후 계속해서 역대 최소 경기 100만 단위 관중 기록을 경신했으며, 역대 최초로 전반기 700만 관

중을 달성한 바 있다.  
후반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관중 동원은 계속돼 7월 24일 800만, 지난 8일 900만을 넘어 시즌 전체 720경기 중 81.5%를 소화한 시점에서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았다.  
KBO 리그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달성했고, KBO 리그에서 현재 총 관중 1위는 133만816명의 삼성, 2위는 128만7002명의 LG, 3위는 126만7865명의 롯데다. 역대 KBO 리그 단일 시즌 구단 최대 관중은 2024시즌 LG의 139만 7499명이다.  
평균 관중은 1만7187명으로 역대 최초 1만7000명 대를 바라보고 있다. KBO 리그 역대 최대 평균 관중은 2024시즌의 1만5122명이다.

또한 전체 587경기 중 278경기가 매진돼 2024시즌에 세운 단일 시즌 최대 매진 기록이었던 221차례 매진 기록도 이미 경신했다.  
KBO 리그는 ABS와 체크스왱 비디오 판독 도입을 통한 판정 공정성 향상, 피치클락 적용으로 인한 속도감 있는 경기 진행, SNS 플랫폼상에서의 콘텐츠 제작 허용에 따른 팬들의 높이 콘텐츠로서의 재발견 등을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가볍게 넘어섰다. 여름 막바지에 들어선과 동시에 가을야구 티켓을 두고 다수의 팀이 펼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시즌 세웠던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인 1088만 7705명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2025 KBO 리그 100만 단위 관중 달성 일지

구분	관중단위	일자	경기수	100만 단위 소요 일수
1	100만	4.6	60	15
2	200만	4.22	118	16
3	300만	5.5	175	13
4	400만	5.18	230	13
5	500만	6.3	294	16
6	600만	6.17	350	14
7	700만	7.2	405	15
8	800만	7.24	465	22
9	900만	8.8	528	15
10	1000만	8.23	587	15

2025시즌 18번째 전석매진  
팬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3경기 만에 터졌다!' 손흥민, MLS 데뷔골 폭발



동료와 득점을 기뻐하는 손흥민. 배민

전반 6분 프리킥 마수걸이 득점  
2주 연속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 FC의 공격수 손흥민(33)이 데뷔 3경기 만에 기막힌 오른발 프리킥으로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작렬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달러스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에서 전반 6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손흥민은 전반 6분 테니스 부양기가 페널티킥 장면에서 얻은 프리킥의 키커로 나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달러스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쏘았다.  
이로써 지난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도움을 작성하며 LAF 유니폼을 입고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던 손흥민은 MLS 데뷔 3경기 만에 'MLS 데뷔골'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LAF는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전반 13분 달러스의 로건 패리팅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무승부를 기록, 2연승에 이르지 못하고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에 만족

해야 했다.  
LAF는 달러스를 상대로 손흥민을 최전방에 선발 투입하며 득점의 기대감을 불렀다. 직전 뉴잉글랜드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었다.  
손흥민의 득점 본능은 전반 6분 만에 폭발했다. 팀의 세트피스 전담 요원을 맡은 손흥민은 페널티킥 장면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서 정확하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달러스 골대 왼쪽 구석 상단 그물을 찔렀다.  
MLS 데뷔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직전 뉴잉글랜드전 도움을 합쳐 이번 시즌 1골 1도움의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중계진은 손흥민의 득점 상황에 대해 "손흥민이 벽을 넘겼다. 볼에 충분한 속도와 회전을 실었다"며 "볼이 골키퍼로부터 멀어지며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찬사를 보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이날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M)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일주일 전 뉴잉글랜드전에 이어 2주 연속이자 두 번째로 POM에 뽑혔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스포스카이는 MLS 데뷔골을 터트린 손흥민에게 양 팀을 통틀어 최고인 평점 8.6을 주며 최고 활약 선수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 '제17회 구례전국여자자천하장사·대학장사씨름대회' 입상자 가져져 구례군청 엄하진, 여자부 씨름 국화급 우승...올 시즌 세번째

'제17회 구례전국여자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여자부 국화급서 구례군청 엄하진 우승을 차지했다.  
23일 전남도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구례전국여자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여자부 전문 체급별 결정전에서 매화급(60kg이하) 김채오(안산시청), 국화급(70kg이하) 엄하진(구례군청)이 장사에 등극했다.  
국화급(70kg이하) 결정전(3판 2선승제)에서는 엄하진(구례군청)은 연이은 잡채기를 성공하며 이제하(안산시청)를 2-1로 제압하고 홈그라운드에서 올 시즌 3번째이자 개인 통산 16번째 국화급 사를 차지했다.  
또 매화급의 구례군청 김사우는 안산시청 김재오에게 여자부 전문 매화급(60kg 이하) 결승전(3판 2선승제)에서 발다리퇴치기와 안다리를 당해 2-0으로 패배했다. 김채오는 이번 승리로 6번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23일 열린 '제17회 구례전국여자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여자부(전문, 생활)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한 김채오(안산시청), 김하진(구례군청), 김채은(서울시씨름협회), 강은별(영인체육회), 예연정(경북도씨름협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째 매화급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앞서 열린 여자부 생활체육 체급별 결승전에서는 작년도 대회 우승자인 예연정(경북도씨름협회)이 올해도 무궁화급사 타이틀을 가져가며 2연

## 전남 바둑 김현석, 대통령배 최강부 정상 등극

올시즌 '2관왕'...아마 바둑계 강자  
내년 WAGC 대한민국 대표 선발

김현석(전남도바둑협회)이 최고 권위의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와 전남도바둑협회(회장 기명도)는 김현석(19·정수영바둑도장)이 최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7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최강부에서 전국의 강호들을 모조리 꺾고 왕좌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김현석은 '제19회 김해시장배 전국 바둑대회'(4월)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하며 아마 바둑계의 최강자로 급부상했다.  
또한 김현석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2026년 '제46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WAGC)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영예를 안음과 동시에 상금 300만원을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무엇보다도 김현석은 오는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해 입상의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김현석은 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한 뒤 8강에서 심의현(울산시바둑협회)을, 4강에서 최우수(경기도바둑협회) 등을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또 결승에서는 대통령배 4연패에 도전하는



김정선(경기도바둑협회)을 상대로 막강마하의 점전을 펼친 끝에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며 값진 승리를 거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현석 선수는 전남 체육의 자랑스러운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 인재"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 이정후, MLB 다승 1위 페달타 공략해 중전 안타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MLB) 전체 다승 1위(15승)를 달리는 프레디 페달타(29·밀워키 브루어스)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MLB 밀워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쳤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0에서 0.259(467타수 121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왔다.  
이정후는 5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페달타의 시속 146km 직구를 공략해 시속 156km로 중견수 앞을 향한 안타를 날렸다.

1회 첫 타석에서는 볼을 쳤다. 이정후는 페달타의 시속 150km 직구를 받아쳐, 시속 162km 빠른 타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은 2루수 경면으로 날아갔다.  
이정후는 6회 2사 1, 2루에서는 오른손 불펜 그랜트 앤더슨의 151km 시커에 막혀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8회에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시속 145km 컷패스트볼을 받아쳐 시속 154km의 빠른 타구를 만들었지만, 중견수에게 걸려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달성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MLB 승률 전체 1위(0.623·81승 49패) 밀워키를 7-1로 꺾고 4연패 늪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